

시간의 흔적이 공간에 내뿜는 '소리 없는 아우성'

November 22, 2011 | 유인화 선임기자

시간의 흔적이 공간에 내뿜는 '소리 없는 아우성'

칸디다 회퍼·필립 파레노 등 전시 눈길

올해를 마무리하는 전시 가운데 유명 외국작가들을 초대해 '존재하는 공간'과 '흘러가는 시간'의 관계성을 사유하는 전시가 눈에 띈다. 독일 사진작가인 칸디다 회퍼(67)와 토마스 데만트(47), 국립현대미술관이 기획한 '소통의 기술'에 참여한 안리 살라(37)·필립 파레노(47)·호르헤 파르도(48) 등의 작품이 한국에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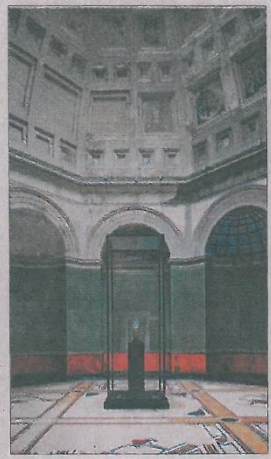
세계적인 사진작가 칸디다 회퍼의 개인전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서울 삼청동 국제갤러리 신관에서 열린다. 독일 필름대를 졸업한 작가는 2009년부터 작업한 독일 베를린 노이에미술관 시리즈 12점과 2010년 제작한 수도원 시리즈를 공개한다.

노이에미술관은 1841년부터 1859년까지 18년 동안 지어진 프러시안 건축양식의 기념비적 공간이다. 이곳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파괴돼 60여년간 폐허로 방치되다 1997년 영국 건축가 데이비드 치퍼필드가 복원해 2009년 다시 문을 열었다. 작가가 이곳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은 이유는 동·서독 체제가 남긴 소라린 분단의 상처를 묵묵히 보듬고 있는 미술관의 모습에서 공간의 역사적 변천과 현존하는 유물론적 관점의 문화를 읽고 싶었기 때문이다. 회퍼는 미술관 내부의 여덟 곳을 촬영해 시간의 흔적이 남긴 건물 고유의 모습과 화려한 장식, 선사시대 유물이 말없이 뿜어내는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함축의 상징으로 꼽히는 '베를린 노이에미술관 IX'(사진)는 8각형의 돔으로 이뤄진 홀 중앙에 위치한 기원전 1340년대 고대 이집트의 네페르티티 여왕의 두상을 담은 작품이다. 작가가 추구해온 '인간의 부재와 공간의 연출'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40여년 동안 100회의 개인전을 연 회퍼는 로맹의 '칼레의 시민' 12점이 소장된 미술관과 소장처를 각각 방문해 촬영(2001)하는 등 공간과 시간의 영속성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다. "공간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곳에 놓여진 사물들로 인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공간과 사물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담아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02)735-8449

토마스 데만트의 개인전은 24일부터 내년 1월10일까지 서울 청담동 PKM 트리니티갤러리에서 마련된다.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개인전에는 2009년부터 제작된 대형 사진작품 10여점이 걸린다. 독일 뒤셀도르프 아카데미에서 조각을 전공한 작가는 실제(공간)와 허구(시간)에 대한 고민을 사진에 담아왔다. 그는 역사적인 사건이나 개인의 기억을 바탕으로 한 특정 장면을 종이만을 사용해 실제 크기의 모형으로 재현하고, 그 낯설고 이질적인 상황을 사진으로 촬영한 후 모형들을 파기하는 과정까지를 작품으로 간주한다. 공간을 '부수는 행위'를 통해 야만 시간적 작업이 '완성'되는 셈이다. 작가는 모형을 만들어 촬영하고 그 모형을 부수는 과정 속에서 현실은 조작되고 재구성된다는 사실, 즉 사진의 교묘한 조작과 허구성을 날카롭게 짚어내고 싶어한다. 그는 공간과 시간, 현실과 가상, 평면과 입체, 진실과 거짓의 문제 등을 다루기 위해 현대미술의 장르적 구분을 거부한다. 대신 사진·영상·설치 등 다양한 장르들을 정교한 작업으로 해체하거나 통합해왔다. (02)515-9496

'소통의 기술'전은 12월4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미술관 분관에서 계속된다. 참여작가는 알바니아 출신으로 독일 베를린과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하는 안리 살라, 알제리의 필립 파레노, 쿠바 출신의 호르헤 파르도, 서울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등에서 활동하는 한국의 함양아 등 4명이다. 이들은 각각의 전시실에서 영상, 소리, 설치, 디자인 등 복합장르적 미디어를 통해 공간과 시간의 소통에 대해 얘기한다. 특히 인기 있는 공간은 필립 파레노와 안리 살라의 전시방이다.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미술관 분관에서 열린 칸디다 회퍼의 '존재하는 공간' 전시 모습.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분관에서 열리고 있는 '소통의 기술'전에 전시된 필립 파레노의 설치작품 'Speech Bubble(말풍선)'을 감상하는 직장인들. 국립현대미술관이 마련한 '김대리, 미술관 가는 날' 행사는 주중(화-금)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신분증이나 명함을 보여주면 4000원의 입장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상훈 선임기자

안리 살라는 15분25초 길이의 영상 작품 'Dammi i colori'(2003)에서 친구 에디 라마가 알바니아 수도 티라나 시장이 되자 무채색의 도시 건물에 빨강·파랑·노랑 등 원색을 칠해 공간 변화를 시도했다. 그는 필름을 통해 낙후되고 암울한 색채의 도시에 강렬한 에너지가 담긴 과정을 보여주며 폐쇄적인 공간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치적 사회적으로 치유되는 상황을 암시한다. (02)2188-6000 유인화 선임기자 rhew@kyunghyang.com